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

히11:1-12

요즘은 웰비잉(well-being) 즉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웰다잉(well-dying) 즉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더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후회는 대체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좀 더 참을 걸, 좀 더 잘할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부지런할 걸입니다. 이러한 후회는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생활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제시되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아벨의 믿음 - 예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즉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인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특히 삶 속의 예배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교리에 관한 것을 마무리하고, 실천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첫번째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롬 12:1)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구원 받은 자들에게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예배라고 했습니다. 단언적으로 말해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생각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4 장에 보면 결과적으로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 제사 인 것입니다.

2. 에녹의 믿음 -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동행은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제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사귀기 위해서 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다는 것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왔어도 초지일관 하나님만을 의지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기는 태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기고 마음에 안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심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노아의 믿음 - 기다림과 순종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100 년이 넘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그 동안 비라고는 한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는 노아처럼 낙심될 때가 종종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는 노아와 같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아브라함의 믿음 - 바라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이미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단산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불러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로 눈만 감으면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 내 마음속에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에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에 대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 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스티븐 스칼(Stephen Scott)라는 사람은 성경 읽기로 지혜를 얻어서 거대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을 당해 9 번이나 직장을 잃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별로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해매던 어느 날 그는 한 백만장자를 만나게 되어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만장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매일 성경 잠언서를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2 년 안에 사장보다 더 똑똑해지고 5 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은 그날부터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몇 년 뒤에 그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백만장자의 말대로 수십억 달러를 판매하는 부자가 되었고, 자신이 성경을 통해 얻은 지혜를 <솔로몬 부자학 31 장>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위축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네 믿음이 너를 축복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에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다른 것보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심한 것에 대해 꾸짖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마음속에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선택을 하든지 안 믿기로 선택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 지라도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작정하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 장 6 절로 8 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몰아쳐도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기는 것은 기도로서 말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겨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안식이 다가오면 그것은 벌써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금식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상상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기 위한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나누십시오.
4.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다리며 순종한 결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